



이기대 해안산책로 “최고예요” 2010 부산갈맷길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지난 16일 이기대에서 오륙도에 이르는 구간을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꼈다. 이날 이기대 어울마당과 종착지인 오륙도에서는 ‘소리바다’의 공연과 색소폰 연주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이어져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진·김행중>

‘남구동행푸드마켓’ 개장

남구 등 저소득층 주민 기부식품 무료 이용



기업이나 개인이 기탁한 후원품을 저소득층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남구동행 푸드마켓’이 지난 15일 개장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남구는 지난 15일 이종철 구청장과 김정훈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동행푸드마켓’ 개장식을 열었다. 푸드마켓이란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남겨진 물품과 후원자가 기탁하는 후원품을 슈퍼마켓 형태로 진열해 저소득층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부식품지원센터로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에 문을 열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주)신대양 건설(회장 박상호)에서 1천만원 상당의 쌀을 보내오는 등 각급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성금·품이 답지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종철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나 기업체로부터 기증받은 기부 식품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기 위해 문을 연 푸드마켓이 이웃사랑의 시발점이자 상징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푸드마켓은 구청 인근 오양양지대선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국·시비 2억8천만원의 들어 마련됐다. 이용대상자는 남·수영·동구지역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가정 등 800세대이다.

이용자는 회원증을 지참하고 푸드마켓을 방문해 월 1회 5개 품목 2만원 상당의 식품을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에게는 집까지 배달도 해준다. 후원 안내 등을 위한 온라인 블로그(blog.daum.net/togetherfood)도 개설돼 운영 중이다.

구는 앞으로 대형 유통마트와 종교단체, 기업, 봉사단체 등 후원자를 통한 기부자 발굴과 함께 식품 기탁함을 설치해 푸드마켓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식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638-1377

제15회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

애항부문 이 중 현 봉사부문 정 화 대 효행부문 정 경 속

교육부문 하 상 현
치안부문 이 미 속
소방부문 이 재 응



이중현씨



정화대씨



정경속씨



하상현씨



이미속씨



이재응씨

남다른 애항심과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효행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15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일반상 애항부문에는 이중현(68 문현3동)씨, 봉사부문과 효행 부문에는 정화대(70 대연4동)씨와 정경속(48 대연6동)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별상 교육부문 수상자로는 하상현(43 성동초)교사가, 치안부문에는 이미속(46 남부경찰서)주무관이, 소방부문에는 이재응(42 남부소방서)소방장이 각각 선정됐다.

남구는 지난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중현씨는 2003년부터 나눔의

집과 나눔가게를 설립,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해마다 이웃돕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동네소식지를 발행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사)기러기문화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저소득층 주민의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정화대씨는 새빛기독보육원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식봉사와 장애인수업봉

사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2008년에는 자원봉사 4,000시간을 달성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총재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경속씨는 85년 결혼 당시부터 당뇨병과 신장결석으로 투병 중인 시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며 효를 실천해 오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정성껏 간호하는 모습을 바라본 많은 이웃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황령산터널 입구 옹벽 경관 개선

오륙도·떠오르는 해 등 시각화 남구이미지 표현

황령산터널 입구 회색 옹벽이 일체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남구는 지난 15일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중에 황령산터널 입구 옹벽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구간은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길이 240m, 면적 1,400㎡ 규모의 옹벽이며 구는 이곳에 연말까지 시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구는 이 옹벽에 환경오염이 없는 합성목재와 LED 재료를 이용해 남구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오륙도와 떠오르는 해, 바닷바람을 시각화함으로써 남구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점·선·면을 이용해 조형미를 살려 도시미관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곳은 자동차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옹벽이 길어 공공디자인



초감도

인 도입이 요구되어 왔던 곳으로 지난 1일부터 통행료 무료 전환에 따른 요금소 철거와 차선 작업이 한창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착박한 회색 옹벽이 환경 친화적인 입체적 디자인으로 단장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아름다운 주민친화형 시설물로 거듭 날 것”이라며 “반대방향의 잔여 구간 980m도 예산을 확보해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구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2면> ●UN의 날 행사 ‘다채’ <3면>

●우암동 도시숲을 거닐다 <4면> ●구두수선공의 삶과 인생 <5면>

2010 부산평생학습 축제 열린다

10.29~30일까지 부경대 운동장 일원서

2010 부산평생학습축제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부경대학교 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행복 플러스, 배움이 즐거운 평생학습’이라는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개막 당일인 29일 오후 3시부터 부경대 장보고관에서 연구시법학교 사례발표 및 보고회가 열리며 이어 오후 5시 부경대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개최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특설무대에서는 남구 주민자치회 동아리 19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두은 실력을 겨루는 제6회 오륙도 주민자치회 경연대회가 열린다.

축제 기간 대운동장에서는 45개 기관이 모두 58개의 부스를 만들어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4개 권역별 주민자치회 수상생 작품을 전시하고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LED야광 행렬병, 모형 비행기 만들기 등을 통해 축제 참가자들에게 신나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독서마당 행사로 원로원 부산운동 및 북카페가 운영되며 다문화 백일장과 작가 초청 강연회가 30일에 열리며 학교 도서관 축제와 아이아전 통돌이 체험, ‘우당탕탕 톱고집전’ 공연 등 참여·체험 마당 행사도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0331-중-12545호

- 5F 이벤트실/뷔페식당 (환자용 자연식단)
- 3F 암(瘤) 재활병동
- 2F 노인재활병동
- 1F 원무과/노인재활병동
- B1 주차장

그랜드자연병원

황령산터널 요금소 500m 앞

보호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병원

전화상담 051.612.0075

www.grandnature.kr/608-020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1번지

황·령·산·소·나·무·가·보·이·는·창·가·에·햇·살·이·비·칩·니·다·

생각의 깊이가 다른 당신!
당신은 그랜드 자연휴병원 가족입니다

- 희망과 대안이 있는 자연속 명품병원
- 24H 서비스 의료·간호·입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식단 영양과 바일이 걸려준 좋은 재료에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 의학·한의학 보와 통합 의학적 재단 의학·한의학 협진 병원입니다.
- 호텔형 병원 더 쾌적하고 더 편안한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 주간/월간 행사
- 월 16:00 찾아오는 시민 건강강좌
- 수 15:00 미술수련 다도 요법
- 목 15:00 행복 숲로 온음치료
- 매월 환우와 함께하는 그랜드자연 정기 음악회



그랜드 자연 휴 병원
GRAND NATURE HOSPITAL

병원장 나용승 의학박사 現 부산의대외래교수, 부산의과대학후, 동인고후